

월요광장

만나서 이야기하기



김우항
이화여대 석좌교수

얼마 전 일본 동경에서 국제 도서전이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이 주재국으로 한국 문화와 문학에 대한 특별전시가 열렸다. 한일 출판 관계자들이 모이는 만찬에서 일본 출판협회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주제 행사가 그동안의 여러 나라의 주제국 행사에 비해 더 잘되었다고 칭찬하였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본 측 대표가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었음은 틀림이 없다.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어느 일본 출판사 대표도 일본의 정치가들이 한일관계를 긴장하게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과거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과거에 범한 잘못

들이 일본 국민 전체가 행한 것이 아니며, 일본 국민도 그 희생자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이해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때 신조 수상을 비롯하여 도발적인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 출판사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모든 일본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센카쿠 열도 디아오유도(釣魚島)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하토야마 전 수상의 대담한 발언은 이미 보도된 바이다. 일본에 가서 알게 된 것이지만, 위안부에 대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이 있을 후 30개나 되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규탄하는 결의가 있었다. 반한(反韓) 시위가 있을 때에는 대체로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민주사회로 발전하여 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일 관계가 적대적으로 빠져들어 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람들의 느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분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대 과제이다. 동북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의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정치적인 방법으로만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정치적인 또는 탈정치적인 교란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인 해결이 그에 뒤따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점에서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의 교류,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교류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류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제 관계의 확대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여러 나라의 지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동북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또는 다른 국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치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정치적으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사를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불인자심(不忍之心)은 우물에 빠지려는 아기가 있으면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구하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맹자는 이러한 마음에서 도덕의 심리적 기초를 찾았다. 그런데 이러한 차마 견

디지 못하는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맹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마음을 중요시했다. 제(齊)의 선왕(宣王)이 회생에 쓰러는 소를 보고 소를 놓아주고, 양으로 대체하라는 명을 내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모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맹자는 소는 눈앞에 본 것이고,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진 마음의 움직임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어진 마음이 치정자의 마음의 핵심이어서 마땅하다고 했다. 정치는 문제를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상화가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그것은 구체적인 인간들의 구체적인 관계로부터 쌓아올려져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강한 주장을 내세웠다거나 마주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차마 못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 정치를 피한, 작고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발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법조칼럼

운명의 수레바퀴



윤성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필자는 전국에 있는 여러 검찰청에서 강력 전담 검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로 살인 등 강력사건을 수사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필자가 수사한 여러 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마음에 남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2008년 봄이었습니다. 아내인 P씨가 남편인 K씨와 파경에 이르러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위로 K씨의 가슴을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P씨를 조사하면서 남편을 죽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내인 P씨와 남편인 K씨는 둘 다 고아로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P씨는 성인이 된 후 연하인 K씨와 사귀게 돼 결혼한 후 그간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듯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고 P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딸이 병약해 자주 아팠고 P씨의 정신은 온통 딸을 향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K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훨씬 연상인 여직원과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고 P씨는 P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K씨는 K씨와 함께 주방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K씨로부터 “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이도 포기하겠으니 나만 놔 달라”는 말을 듣자 식탁 위에 있던 가위로 K씨의 가슴을 찔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K씨는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3살 난 딸과 처가 있는데 왜 훨씬 연상인 동료 여직원과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아마도 고아로 성장한 K씨의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연상인 P씨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느껴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P씨가 자주 아픈 딸을 돌보느라 K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 동료 여직원에게서 다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가정을 두고 그 여직원과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P씨는 K씨로부터 “애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자 가위로 K씨의 가슴을 찔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P씨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고아로 성장한 P씨에게는 딸과 가장은 평생 꿈꿔왔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K씨로부터 딸마저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자 P씨에게 K씨는 남편이 아니라 P씨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려 는 악마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P씨의 머릿속은 그 순간 새하얗게 되고 이후 기억나는 것은 가위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는 K씨의 모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말을 알게 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외로움을 달래며 운명의 수레바퀴를 행복의 방향으로 굴러다가 삶 속에서 일어난 우연 때문에 다시 참혹한 결과를 향해 달려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편인 K씨는 이미 죽었고 아내인 P씨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3살짜리 딸 또한 사실상 고아로 성장하게 되어 부모의 인생유전이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

다. 그래서 딸이라도 고아를 만들지 말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필자가 근무했던 검찰청의 차장님, 부장님과 함께 이와 같은 사정을 상의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P씨를 살인죄가 아닌 처벌이 이보다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고, 벌금 또는 P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P씨는 교도소에서 저에게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한번 보내왔는데, 출소하면 정말 딸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P씨는 아마도 2011년 무렵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것입니다. 지금 P씨는 과거를 잊고 딸을 잘 키우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용기를 내어 도와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K씨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P씨와 K씨의 딸이 고아로 성장하는 것은 막은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필자에게도 무척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기고

차별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



차은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제도가 이제 만 5년이 지났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말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하 차별시정 신청)사건이 모두 170건 신청됐는데 이는 연평균 29건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것은 제도 홍보 부족, 제작 중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해 기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날만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

을 주고자 전국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다룬 사건 등 사례 중심으로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차별시정제도는 한 직장 내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의 발생으로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다거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행정책 등 일자리 제공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둘째, 신청기간 총족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3년 3월 31일 자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기간제근로자는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차별 비교 대상자로 차별을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같은 직장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말한다. 그

래서 이들과 비교해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차별항목 및 차별이유는 합리성 부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은 부분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는 여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차별시정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이라면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볼 가치는 있다.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다가는 차별시정 신청을 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꽤 있다. 일례로, 5년간 파견근로자로 일했으나 5년 동안 임금인상이 전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후 조사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년간의 차별 임금 3000여 만 원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있었다. 바라건대, 이 글이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농부증 치료위해 마을회관에 물리치료기 지원을

70평생을 농사만 지어오신 친정 아버지가 농부증을 앓고 계시다. 농부증은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손발이 저리는 식으로 온몸 전체가 통증과 고통을 주는 병이다. 이런 농부증을 앓는 이유는 수십 년 평생을 농업 노동에 매달려 왔기 때문인데 그 안에는 육체노동의 영향뿐만 아니라 각종 농

그동안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농부증에 대한 치료방안과 대책은 신경 안 쓰니 너무 서운하다. 그 때문에 모든 농민들의 심신이 피폐해졌고 농가소득이 오르지도 못하니 아픈 몸이나마 제대로 치료받을 만큼 낙담하기도 한다. 요즘 농촌에는 마을회관이 전부 다 지어져 있다. 정부에서는 약간의 예산을 들여 각 농촌 마을회관에 농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 시설로써 안마기, 족욕기, 맞사지가, 찜질기 같은 걸 구입해 지원해줬으면 한

다. 이게 마을회관에 비치되었으면 모든 농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계들은 큰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정부가 농민들의 심각한 농부증을 치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 농촌에는 농부증을 치료하려 다니고 싶어도 가까이 민간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에는 이런 물리치료 기계라도 당장 질실하다. ▲성열봉·목포시 은금동

社說

광주지하철 2호선 최적의 노선 유지해야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이 최적의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천동 버스터미널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노선에서 제외했다가 수정안을 부랴부랴 만들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 등 난관이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정거장 44곳을 발표했다가 버스터미널과 야구장이 빠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선(支線·본선에서 갈라지는 선)으로 해당 노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지하철도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빼놓았다가 뒤늦게 고치는 단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총 사업비 1조 7400억여 원을 들여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청~광주역 1단계 구간은 2020년, 광주역~유덕역 2단계 구간은 2023년,

백운광장~화방교역 3단계 구간은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노선에서 버스터미널과 야구장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일자 지선 건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호선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선 건설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수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확보 등이 쉽지 않아 노선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 여건이 문제였지만 광주지하철 1호선은 시청과 버스터미널 등 중요한 노선을 연결하지 못해 개통 초기부터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여건에서 2호선 만큼은 진정한 ‘시민의 발’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무릅쓰고 건설기로 한 2호선이 최선의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광주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전교조도 반대한 교장단 선심성 해외연수

광주시교육청이 ‘선심성 공짜 연수’라는 비난 여론에도 강행하고 있는 교장단 해외연수를 놓고,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왜곡과 곡해”라고 강행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교조까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효과 의심되고, 형평성 시비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교장단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그동안 교장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이 없고 다른 해외연수의 경우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특히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수를 부리며 낭비성 연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미 교장단 선심성 해외연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교장단에게만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는 게 가당할 일인가. 이는 내년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광주시선관위가 ‘공짜 해외연수’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며 면허부를 주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지지 않은 유권해설일 뿐이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비싼 전기료로 인해 점등뒤에도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수억 원을 들여 교장들이 우르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비치탐을 흘리며 공부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교육청은 당장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교장단도 거부하는 게 도리다. 아니라면 교육청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無 等 鼓

자미로 파이, 뮤즈, 어스 윈드 앤 파이, 메탈리카 그리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올 여름 음악 팬들을 만날 각종 페스티벌의 화려한 라인업이다. 여름이 다가오면 음악팬들은 설렌다. 주최 측이 참여 뮤지션을 한팀 한팀 알려줄 때마다 기대감이 넘친다.

얼마 전 ‘치맥 페스티벌’ 라인업 발표가 있었다. 페스티벌 초청 가수 이름을 예상하고, 기사를 클릭한 사람들은 ‘뽕’ 터졌다. 라인업에 등장한 것은 교촌 치킨 등 각종 치킨 브랜드였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다.

오는 18~2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에서 ‘2013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최 측은 맥주와 소시지로 대변되는 독일의 ‘육토버 페스트’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대구는 치킨의 본고장이다. 교촌치킨,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통닭,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만 원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있었다. 바라건대, 이 글이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로 제공되는 치킨만 200에 달한다. ‘치맥’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야식이다. 각종 설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면 배달원들은 일 새가 없다. 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들이 꼽는 최고의 데이트도 ‘호프집의 치맥 데이트’였다. 반면 여성들은 ‘영화관 데이트’를 꼽는 했지만 말이다. SG워너비 출신 김진호는 신곡 ‘치맥’을 발표하기도 했다.

목요일에 방영되는 TV 프로 ‘썰전’은 방송에서 최대 라이벌로 ‘무한도전’ 등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치맥’을 꼽았다.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에 따르면 “치맥을 먹으면서 ‘썰전’을 보기도 하지만 치맥을 위해 밖에 나가서 밥이 열린다. 주회 측은 맥주와 소시지로 대변되는 독일의 ‘육토버 페스트’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대구는 치킨의 본고장이다. 교촌치킨,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통닭,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만 원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있었다. 바라건대, 이 글이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치맥 페스티벌

‘썰전’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치맥을 위해 밖에 나가서 밥이 열린다. 주회 측은 맥주와 소시지로 대변되는 독일의 ‘육토버 페스트’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대구는 치킨의 본고장이다. 교촌치킨,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통닭,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만 원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있었다. 바라건대, 이 글이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언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체육부 2200-693 사진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